

제한 중국유학생의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김 소 정[†]

송 하 나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제한 중국유학생의 타문화권에서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고 추후 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시사점을 얻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4년제 대학에 학부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 유학생 12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의 학교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학교적응에서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제한 중국유학생의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짐으로써 제한 중국유학생의 학교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그리고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에서 그 설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심리적 안녕감

* 본 연구는 김소정의 석사논문(2010년 8월, 지도교수 송하나)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소정,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E-mail : psalms4011@skku.edu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엔 이전의 고등학교와는 다른 학업, 대인관계, 학교생활,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엔 새로운 언어, 음식, 사회관습, 생활방식에도 적응을 해야 한다. 이러한 갑작스럽고도 급격한 환경변화는 학교적응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동일한 학교환경에 처해지게 되지만,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김삼화, 2005). 특히 인지적 종결욕구는 유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지적 종결욕구란 자신 앞에 놓인 불명확한 것들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며, 어떠한 것이든 명확한 답을 얻고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를 말한다(Kruglanski & Webster, 1994). 즉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인지적인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답이 아닐지라도 우선 답을 내리고 더 이상 정보탐색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이다. 인지적 종결욕구는 두 가지 성향, 긴급성향(urgency tendency)과 지속성향(permanency tendency)을 가진다. 긴급성향은 불확실한 상황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상태를 ‘포착(seizing)’하는 성향을 말하며, 지속성향은 기존의 지식을 ‘보존(preserving)’하여 ‘고착(freezing)’하고 향후의 지식을 보호하려는 이중적 성향으로서 종결 상태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말한다. 이러한 포착과 고착은 각각 결정화 시점(crystallization point) 이전과 이후에 나타난다. 결정화 시점 이전에는 많은 정보탐색이 이루어지지만 이후 시기에는 정보탐색이 감소한다. 결정화 시점 이전에 인지적 자원이 충분한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를 모두 검토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용한 정보만을 이용해 판단

을 내리려고 한다.

불가피하게 불확실한 정보와 상황들에 많이 노출되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인지적 종결욕구는 그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해석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Hunyady & Jost, 2005; Kruglanski & Webster, 1996). 결정화 시점 이전에 인지적 종결욕구가 높은 유학생은 심란함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그 사회의 세계관을 빨리 흡수하고 동화되고자 한다. 이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정보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Crowson & Debacker, 2008).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부적응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학업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정보처리를 취하기 때문에 학업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Crowson & Debacker, 2006).

인지적 종결욕구는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학생들은 학우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을 추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불안감, 우울, 스트레스, 신경증 등이 증가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이 나타난다(Bebbington, Colbert, Dunn, Fowler, Freeman, Garety, Jolley, & Kuipers, 2006; Colbert, Garety, & Peters, 2006; Didonna, Genio, Mancini, & Prunetti, 2002).

실제로 중국 유학생들은 문화차이에 대한 무지와 문화이해의 어려움, 대인기술의 결함 등을 경험하고 있다(김삼화, 2005). 한국 학생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허춘영, 1998),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장

해은 중국 유학생들이 위계질서, 상하관계, 남존여비, 예의 존중 등이 아직도 중요시되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적응하기가 힘든 점과 생활태도의 차이로 한국인과의 교제가 힘들기 때문이다(김광일, 이장한, 허춘영, 1999).

그러나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학생은 자신을 좋게 평가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특성을 보인다(Baumgardner, 1990; Dunning, 1995).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나 가치판단을 말한다(Coopersmith, 1967). 기존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현실에 잘 적응하며, 높은 성취 및 정신건강을 보인다.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Arndt, Greenberg, Pyszczynski, Schimel, & Solomon, 2004; Brown & Taylor, 1988; Dubois & Flay, 2004, 재인용). 당면한 문제에 대해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며 부정적인 경험에는 덜 심각하게 반응하고, 오히려 생활사건에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변화를 위한 기회로 생각한다(김은희, 2000; Brown & Mankowski, 1993; Rogenberg, 1982). 즉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정보나 결과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피해를 받게 되었을 때, 이를 완화하는 완충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Burke & Cast, 2002). 또한 학업성취와 교우관계 등의 학교적응과도 관련되어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적응문제를 갖게 되고 많은 경우 우울증과 관련이 있었다(강혜원 · 고향자, 2000; 반은민, 2000; 최해림, 1999; Bachman & O'Malley, 1984; Faunce, 1984; Rosenberg, Schenbach & Schooler, 1989; Wylie, 1979).

이처럼 유학생은 단기간 머물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민자들보다는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을 것이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의 신분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그 나라와 대학에서 적응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하므로 그 증압감은 오히려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에 대해 살펴보면, 2003년에는 1만명이 넘지 않았던 유학생들이 2009년 9월에는 7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유학생이 무려 5만여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78%나 차지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상이한 문화적 배경과 관습을 가지고 있는 중국유학생은 그 수가 날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한국에서의 적응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유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통해 한국문화와 동시에 하위문화로서 한국의 대학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일차적인 생활세계인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이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김광일 · 허춘영, 1997; 김선남, 2007a; 남현주 · 이현지, 2003).

실제 재한 중국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이승종, 1995)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를 옮겨 다니는가 하면 대학을 이탈하여 불법 위장취업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지 않은 적응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김선남, 2007a). 해외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외국 유학생의 부적응은 유학국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고, 위험 집단이 될 수도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삼화, 2005; Pederson, 1991; 陳向明, 1996). 이러한 연

구결과와 같이 재한 중국유학생의 부적응 문제는 그들을 조력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유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재한 중국유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재한 중국유학생의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재한 중국유학생의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 120명이다. 학부 과정에 진학하고 있는 중국유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총 피험자는 120명이었다. 연구대상자 120명 중 남학생은 42명(35.0%), 여학생은 78명(65.0%)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58명(48.3%), 2학년 24명(20.0%), 3학년 24명(20.0%), 4학년 14명(11.7%)이었다. 재한 거주기간은 1년미만 19명(15.8%), 1년이상 2년미만 37명(30.8%), 2년이상 3년미만 26명(21.7%), 3년이상 38명(31.7%)으로 나타났으며, 재한 학업기간은 1년미만 65명(54.2%), 1년이상 2년미만 19명(15.8%), 2년이상 3년미만 19명(15.8%), 3년이상 17명(14.2%)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학교적응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 (1984)가 개발하고 현진원이 번안한 대학생 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사용하였다. SACQ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의 4개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나는 같은 방 친구와 잘 지내고 있다”와 같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또한 내적 합치도가 떨어지는 문항들을 제거하고 5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학업적 적응 .82, 사회적 적응 .67, 개인-정서적 적응 .84, 대학환경 적응 .84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가 개발하고 김명소 · 김혜원 · 차경호(2001)가 번안 · 수정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사용하였다.

PWBS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개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명소 등(2001)은 총 54문항으로 구성된 PWBS를 대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Cronbach's α 와 문항 제거 후의 α , 문항-총점 상관계수, 요인부하량 등을 기준으로 문항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척도당 7-8개 문항씩 총 46문항을 선별하여 설문을 했다. 이중 내적 합치도가 떨어지는 문항들을 제거하고 3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자아수용 .70, 긍정적 대인관계 .78, 자율성 .57, 환경에 대한 지배력 .60, 삶의 목적 .77, 개인적 성장 .72로 나타났다.

인지적 종결욕구

인지적 종결욕구는 Webster과 Kruglanski(1994)가 개발하고 Grewal과 Houghton(2000)이 단축한 인지적 종결욕구척도(Need for Cognitive Closure Scale: NFCS)를 변지은 · 이수정 · 이채호 · 이훈구(1997)가 번안한 것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NFCS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Likert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질서와 구조에 대한 선호,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 판단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폐쇄적 사고

의 5개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종결욕구가 높은 사람으로 상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하위요인들 중 신뢰도가 매우 낮은 3개의 하위요인은 제거하고 신뢰도가 높은 2개의 하위요인, 질서와 구조에 대한 선호와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을 사용하였다. 질서와 구조에 대한 선호(Preference for order and structure)는 질서정연하고 구조화된 환경에 대한 선호정도를 측정하며,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Discomfort with ambiguity)은 애매한 상황에 대해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Cronbach's α 는 질서와 구조에 대한 선호 .65,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 .62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Coopersmith(1967)가 개발하고 김경연(1987)이 번안 · 수정한 자아존중감(Self-Esteem Inventory: SEI) Form B(1975)를 사용하였다.

SEI는 '아니다(0점)'부터 '그렇다(1점)'까지 2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의 4개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떨어지는 문항들과 하위요인 중 신뢰도가 낮은 학교 자아존중감을 제거하고 3개 하위요인의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일반적 자아존중감 .71, 사회적 자아존중감 .51, 가정적 자아존중감 .64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인 성별, 학년, 재학 거주기간, 재학 학업기간에 따라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적 t검증과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집단간 차이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Turkey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 심리적 안

녕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은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은 예언변인으로 하였으며 투입방법은 단계적 투입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표 1.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M	SD	최대값	최소값
인지적 종결욕구	질서와 구조에 대한 선호	3.88	.74	5.60	2.20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	3.86	.82	5.67	2.00
	전체	3.87	.65	5.25	2.50
자아 존중감	일반적 자아존중감	.58	.23	1.00	0.00
	사회적 자아존중감	.69	.38	1.00	0.00
	가정적 자아존중감	.77	.35	1.00	0.00
	전체	.63	.22	1.00	0.00
학교 적응	학업적 적응	2.93	.44	4.32	1.74
	사회적 적응	2.92	.50	4.67	1.67
	개인-정서적 적응	3.20	.66	5.00	1.27
	대학환경 적응	3.55	.51	4.76	2.00
	전체	3.17	.41	4.52	1.95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3.89	.68	5.33	1.83
	긍정적 대인관계	3.96	.86	6.00	1.17
	자율성	3.58	.64	5.17	2.00
	환경에 대한 지배력	3.76	.63	5.33	2.17
	삶의 목적	4.21	.79	5.83	2.33
	개인적 성장	4.20	.69	5.57	2.86
	전체	3.94	.51	5.24	2.73

전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재한 중국유학생의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인지적 종결욕구는 전체에 대해서는 3.87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는 질서와 구조에 대한 선호,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인지적 종결욕구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전체에 대해서는 .63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는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아존중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적응은 전체에 대해서는 3.17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는 대학환경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순으로 대학환경적응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적응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전체에 대해서는 3.94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는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지배력, 자율성 순으로 나타났다.

재한 중국유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심리적 안녕감 차이

재한 중국유학생의 성별, 학년, 재한 거주기간, 재한 학업기간에 따라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적 t검증과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집단간 차이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Turkey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인지적 종결욕구

재한 중국유학생은 학년에서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은 1학년은 낮았던 반면에 3학년은 높게 나타났다($F=3.74, p<.01$). 재한 학업기간에서는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에서 1년미만과 3년이상 집단은 낮았던 반면 2년이상 3년미만 집단은 높게 나타났다($F=5.02, p<.001$).

자아존중감

재한 중국유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적 t검증과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성별, 학년, 재한 거주기간, 재한 학업기간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적응

재한 중국유학생은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적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1.32, p<.001$). 그리고 재한 학업기간에서 2년이상 3년미만 집단은 개인-정서적 적응($F=2.66, p<.05$)과 대학환경적응($F=2.63, p<.05$)이 낮게 나타난 반면 3년이상 집단은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재한 중국유학생은 성별, 학년, 재한 학업기간에서 모두 자율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4.07, p<.001$), 학년에서는 2학년은 높게 나타난 반면 3학년은 낮게 나타났다($F=3.61, p<.05$). 마지막으로 재한 학업기간에서 2년이상 3년미만 집단은 높았던 반면 3년이상 집단은 낮게 나타났다.

표 2. 학교적응에 대한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구분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			
	질서와 구조에 대한 선호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학업적 적응	.14	-.29*	.51*	.18**	.20**
	사회적 적응	-.01	-.14	.41*	.19**	.15
	개인-정서적 적응	-.00	-.37*	.39*	.19**	.21**
	대학환경 적응	.04	-.20**	.42*	.08	.32*

* $p < .05$, ** $p < .01$

제한 중국유학생의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학교적응에 대한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의 상관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먼저 학업적 적응과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r = -.29, p < .05$)이 있었고, 일반적 자아존중감($r = .51, p < .05$), 사회적 자아존중감($r = .18, p < .01$), 가정적 자아존중감($r = .20, p < .01$)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적응은 일반적 자아존중감($r = .41, p < .05$), 사회적 자아존중감($r = .19, p < .01$) 간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개인-정서적 적응과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 간에

서는 부적인 상관($r = -.37, p < .05$)이 있었고, 일반적 자아존중감($r = .39, p < .05$), 사회적 자아존중감($r = .19, p < .01$), 가정적 자아존중감($r = .21, p < .01$)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환경 적응과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과는 유의한 부적상관($r = -.20, p < .01$)이 나타났고, 일반적 자아존중감($r = .42, p < .05$), 가정적 자아존중감($r = .32, p < .05$)과는 유의한 정적이 상관이 있었다. 즉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상관분석 결과를 기초로, 인지적 종결

표 3.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예언변인	B	β	t	R^2	ΔR^2	F
학업적 적응	일반적 자아존중감	1.58	.48	6.25***	.32	.26	26.92***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	-.82	-.24	-3.14**		.06	
사회적 적응	일반적 자아존중감	.72	.41	4.90***	.17	.17	24.03***
	개인-정서적 적응	1.00	.35	4.36***	.26	.15	
대학환경 적응	일반적 자아존중감	1.42	.41	4.95***	.17	.17	24.55***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	-.99	-.34	-4.20***		.11	

** $p < .01$, *** $p < .001$

욕구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재한 중국유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학업적 적응에는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에는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정서적 적응에는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환경 적응에는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한 중국유학생의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의 상관성이 <표 4>에 나타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었고, 인지적 종결욕구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자아수용과 질서와 구조에 대한 선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r=.22, p<.05$)이 있었고, 긍정적 대인관계와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은 유의한 부적 상관($r=-.39, p<.01$)이 있었다. 그리고 자율성과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r=-.21, p<.05$)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지배력은 질서와 구조에 대한 선호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r=.26, p<.01$),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과는 부적 상관($r=-.19, p<.05$)이 있었다. 즉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이 낮을수록, 질서와 구조에 대한 선호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상관분석 결과를 기초로,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재한 중국유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자아수용은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영향

표 4.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구분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			
	질서와 구조에 대한 선호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심리	자아수용	.22*	-.09	.64**	.45**	.35**
적	긍정적 대인관계	-.04	-.39**	.34**	.27**	.21*
안	자율성	.07	-.21*	.45**	.28**	.21*
녕	환경에 대한 지배력	.26**	-.19*	.48**	.32**	.33**
감	삶의 목적	.17	-.12	.57**	.25**	.35**
	개인적 성장	.07	-.12	.41**	.26**	.28**

* $p<.05$, ** $p<.01$

표 5.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예언변인	B	β	t	R ²	ΔR^2	F	
심 리 적 안 녕 감	자아수용	일반적 자아존중감	.88	.55	7.65***	.47	.41	51.69***	
		사회적 자아존중감	1.42	.26	3.68***				
	긍정적 대인관계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	.74	-.35	-4.35***	.24	.15		
		일반적 자아존중감	.60	.30	3.67***				
	자율성	일반적 자아존중감	.65	.43	5.21***	.22	.20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	-.26	-.16	-.20*				
	환경에 대한 지배력	일반적 자아존중감	.62	.42	4.94***	.26	.23		
		사회적 자아존중감	.89	.18	2.12*				
	삶의 목적	일반적 자아존중감	.78	.41	4.88***	.17	.17		23.81***

* $p < .05$, ***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대인관계와 자율성에는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에 대한 지배력에는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에는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재한 중국유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학년, 재한 거주기간, 재한 학업기간에 따라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타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재한 중국유학생의 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학년, 재한 거주기간, 재한 학업기간에 따라서 인지적 종결욕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년별로는 1학년은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도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 2학년 또한 1학년보다는 조금 높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하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3학년은 모호한 것에 대해 심한 불편함을 느꼈으며 이것은 4학년에서야 조금 낮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재한 거주기간과 학업기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한 논쟁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서의 패턴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Lysgaard(1955)는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으로서의 적응은 U모양의 곡선을 따른다. 적응은 쉽고 성공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소 외롭고 불행한, 거의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느낌의 ‘위기’가 뒤따른다. 마치

막으로 전보다 좀 더 적응했다고 느끼면서 점차 지역사회에 통합되어간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Oberg(1960)도 Lysgaard(1955)와 같이 적응 단계는 U곡선의 도표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즉 적응은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한 열의와 매료의 ‘허니문’ 단계로 시작해서 위기, 고뇌, 적개심 그리고 움츠림의 시기를 거쳐 마지막엔 적응, 통합 그리고 즐거움의 시기를 거친다고 주장했다(Kennedy, Kojima, Okura, & Ward, 1998).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적응과정에서의 U곡선 패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

둘째, 학교적응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성별과 재한 학업기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적응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 김명소 등(2001)과 Ryff(198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남자는 여자보다 학교에서 신뢰롭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자율성에서 성차가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높은 생활만족도, 행복감, 긍정적인 태도, 학업에서의 높은 집중과 만족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된다(이수진, 2009; Fortier, Fuay, & Vallerand, 1977; Grolnick & Ryan, 1989; Levesque, Ryan, Stanek, & Zuehlke, 2004; Ryan, 1982).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에 의해 통제받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자율성의 욕구는 좌절되고,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낮아지면서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김아영, 이명희, 2008). 재한 학업기간별로 살펴보면, 개인-정서

적 적응과 대학환경 적응에서 동일하게 U곡선 패턴을 보였는데, 재한 학업기간 2년이상 3년미만에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학교에 대한 낮은 애착 및 호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3년 이상이 되어서야 호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새로운 문화권에서의 U곡선 적응 패턴을 지지한다.

셋째, 심리적 안녕감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성별, 학년, 재한 학업기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서는 자율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Campbell, Lapsley와 Watkins(1989)의 대학적응에 대해 자율성과 성차를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김명소 등(2001)과 Lopez(198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 Kagan과 Moss(1962)는 자율성에 성차가 생기는 주요인으로 사회적으로 여자에게는 의존과 순종을, 남자에게는 독립성과 자기주장을 강조하는 성유형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학년과 재한 학업기간별로 살펴보면, 자율성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2학년과 1년미만 2년이상 기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3학년, 2년이상 3년미만 기간에서 갑자기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다시 4학년, 3년이상 기간에서 다시 증가 추세를 회복하였다. 이는 2년이상 3년미만 기간에 겪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과 스트레스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지만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안정숙, 2005).

마지막으로,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먼저 학교적응에서는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과 일반적 자아존중감

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이 낮을수록 높은 심리적응과 학업적응을 보이고(Crowson & Debacker, 2006; Crowson & Debacker, 2008; Kasic et al., 2004),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낮은 심리적 스트레스, 원만한 교우관계, 높은 학교적응을 보인다(구자은, 2000; 김혜경, 1999; 김희화, 1998; 박선영, 2003; 박은민, 2000; 이경아·정현희, 1999; 채영이, 2006)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학교적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적 적응과 개인·정서적 적응에서는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높고,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을 적게 경험할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적응과 대학환경 적응에서는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과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이 높을수록 더 심란해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Kashima & Loh, 2006; Kasic, 2002),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더 잘 기능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만한 대인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 긍정적인 태도, 강한 모험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부정적인 자극에도 덜 영향을 받는다(박지연, 2008; Branden, 1992; Brockner, 1979; Brockner, Derr & Laing, 1987; Greenberg, 1992; Janda, 1996)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심리적 안녕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성과 긍정적 대인관계에서는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을 적게 경험할수록,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수용에서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수용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에 대한 지배력 또한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을 적게 경험할수록,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개인적 성장을 이루고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국내에선 아직 지적 종결욕구에 따른 적응문제를 다룬 연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지적, 심리적인 면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타적인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인지적인 접근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입학 초기가 인지적으로 모호하고 낮은 것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거나 실제적으로는 학부과정 3학년 시기가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또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학교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 고려할 점을 언급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지적 종결욕구의 하위요인들의 신뢰도가 낮아서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과 질서와 구조에 대한 선호만을 대상으로 접근했는데 모든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를 높여서 다양하게 접근하면 중국유학생들의 지적 종결욕구에 대한 적응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업기간에 따른 모호함에 대한 불편함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살펴보았을 때 3학년 시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학생들이 모호한 정보로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의 자율성에서 중국유학생들의 성차가 나타났는데, 아직 중국유학생들의 성차에 따른 자율성과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가 없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자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험자가 서울의 한 학교에만 국한되고, 120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거주 범위를 확대하고 피험자 수도 늘려 일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이화, 김아영, 김대현 (2008).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21(3), 65-88.
- 강혜원, 고향자 (2000). 가치성향, 자기개념 및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14, 69-95.
- 김광일, 허춘영 (1997).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양상에 대한 연구. *정신건강연구*, 16, 166-178.
- 김광일, 이장한, 허춘영 (1999).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18, 107-133.
- 김삼화 (2005). 다문화적 맥락에서의 대인관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재한 중국유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남 (2007a).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46.
- 김현진 (2008).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현주, 이현지 (2003). 청소년 유학생들의 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미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0(4), 121-142.
- 박은민 (2000). 대학생활적응과 부모-자녀간의 사소통 유형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원 (2004). 집단 갈등의 협상에서 종결 욕구가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주아 (2008). 조기유학초등학생의 문화적응,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운호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애착,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 -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바울 (2006). 대학생의 적응유연성신념이 대학생활의 적응과 스트레스 조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최해림 (199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증, 가정적 자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과 심리치료*, 11(2), 183-197.
- 허춘영 (2006).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실태: 한족, 조선족 유학생간의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maca, M. Y., Bracey, J. R., & Umana-Taylor, A. J. (2004). Examining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Among Biracial and Monoracial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2), 123-132.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ehr, T. A., Christiansen, N. D., Hechanova-Alampay, R., & Van Horn, R. K. (2002). Adjustment and strain amo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ent sojourners: A longitudinal study.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3, 459-474.
- Berger, C. R., & Cudykunst, W. B. (2008). Uncertainty and Communication.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10, 21-66.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Cantu, C. L., Kurtz, D. A., & Phinney, J. S. (1997). Ethnic and American Identity as Predictors of Self-Esteem Among African American, Latino, and Whi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2), 165-185.
- Church, A. T. (1982). Sojourner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91(3), 540-572.
- Crowson, H. M., & DeBacker, T. K. (2006). Influences on cognitive engagement: Epistemological beliefs and need for closur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535-551.
- Crowson, H. M., & DeBacker, T. K. (2008). Measuring need for closure in classroom learner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3, 711-732.
- Dustin, E. R., Mertens, C., Murray, G. C., & Scott, C. (1996). Student Self-Esteem and the School System: Perceptions and Implication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9(5), 286-293
- Emiko, S. K., & Loh, E. (2008).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on: Effects of international, conational, and local ties and need for closu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4), 471-485.
- Grewal, R., & Houghton, D. C. (2000). Please, Let's Get an Answer-Any Answer: Need for Consumer Cognitive Closure. *Psychology and Marketing*, 17(11), 911-934.
- Kashima, E. S., & Loh, E. (2006).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on: Effects of international, conational, and local ties and need for closu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 471-485.
- Kennedy, A., Kojima, T., Okura, Y., & Ward, C. (2003). The u-curve on trial: a longitudinal study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2(3), 277-291.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1), 1-26.
- Kosic, A. (2002). Acculturation Attitudes, Need for Cognitive Closure, and Adaptation of Immigra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 142(2), 179-201.
- Kosic, A., Kruglanski, A. W., Mannetti, L., & Pierro, A. (2004). The Social Cognition of Immigrants' Acculturation: Effects of the Need for Closure and the Reference Group at Ent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269-278.
- Roets, A., & Soetens, B. (2009). Need and Ability to Achieve Closure: Relationships with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 155-160.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Umana-Taylor, A. J., & Updegraff, K. A. (2007). Latino adolescents' mental health: Exploring the interrelations among discrimination, ethnic identity, cultural orientation,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dolescence, 30*, 549-567.
- 원 고 접 수 일 : 2011. 06. 10.
수정원고접수일 : 2011. 08. 03.
최종게재결정일 : 2011. 08. 16.

The Relationships among the Need for Cognitive Closure, Self-Esteem, School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 in Korea

Sojung Kim

Hana Song

Sungkyunkwan University

The major purposes of this study were whether need for cognitive closure and self-esteem have an influence on school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 or not.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one hundred twenty chinese students who attended a sungkyunkwan university located in Seoul, Korea. As a non-experimental study, a questionnaire that consisted of need for cognitive closure, self-esteem, school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us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unpaired t-test, one-way ANOVA, Turkey test,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summary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need for cognitive closure according to grade, the length of stay and study in korea. Seco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adaptation according to gender and the length of study in korea. Thir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gender, grade and the length of study in korea. Last, there are significant effects the need for cognitive closure and self-esteem on school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s : *Need for Cognitive Closure, Self-Esteem, School Adaptation, Psychological Well-Being.*